

## 목공예

목공예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통건축과 칠기, 바구니 공예 등 다양한 공예품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1970년에는 그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기후와 변화무쌍한 지형 덕분에 목공예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목재가 풍부하게 자생했습니다. 조몬 시대(기원전 1만 년~400년) 유적에서는 그릇이나 활, 배와 같은 간단한 목제품이 발굴되었습니다. 야요이 시대(기원전 400년~200년)에는 철기의 보급이 이루어졌고, 고훈 시대(약 250년~552년)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전문기술자와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그 영향을 받아 목공예는 점점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와 부유한 상인계층의 부상으로 인해 목공예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작품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공기술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 국제무역 및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 공예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공 장인들은 전통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성 높은 혁신적인 작품 제작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공예는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목공예는 ‘사시모노(指物)’, ‘구리모노(剝物)’, ‘마게모노(曲物)’, ‘히키모노(挽物)’의 4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사시모노’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판자나 패널을 조립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접합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마감합니다. ‘구리모노’는 나무덩어리를 대패나 칼, 끌 등을 사용하여 파내어 형태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나뭇결 등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재료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마게모노’는 삼나무나 편백나무 등의 침엽수를 뜨거운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후, 원기둥이나 타원형으로 구부러 가공하는 기법입니다. 방부효과가 있는 목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목재는 보존성과 보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밥통이나 도시락통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히키모노’입니다. 이것은 물레에 나무덩어리를 올려 회전시키면서 칼을 대어 성형하는 기법으로, 그릇이나 쟁반과 같은 원형 물품 제작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모두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 목재가 휘거나 갈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인은 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시카와에서 목공예가 눈부시게 발전한 요인 중 하나는 목공예 작품이 칠기의 밑바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뭇결을 그대로 살리는 야마나카 칠기뿐만 아니라 가나자와와 와지마의 아쓰누리(옷칠을 두껍게 겹겹이 칠해 튼튼한 도막을 형성하는 기법)로 화려한 장식이 된 칠기에서도 옷을 칠하기 위한 토대로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공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현은 목공예 분야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다수 배출한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인정받은 보유자는 1970년에 '사시모노'로 보유자로 인정받은 히미 고도(1906~1975)입니다. 이외에도 1994년에 '히키모노'로 가와기타 료조(1935~), 2012년에 '마케모노'로 하이소토 다쓰오(1941~2015)가 각각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 작가의 목공예 작품은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